

# ‘품격있는 무주’ 자랑스럽다

### 김희옥 부군수, 취임 200일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 앞당기는데 열정 쏟을 것”

“300여년 동안 조선왕조실록을 봉안했던 조선왕조의 전통과 역사가 서려있는 무주에서 근무하게 돼 영광입니다” 무주군 김희옥 부군수(57세)가 17일자로 취임 200일을 맞았다.



지난해 7월 1일자 부임한 김 부군수는 처음 그 다짐처럼 관내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펼쳤다. 직원들과도 수시로 소통하면서 현장과 조직내부를 직접 꼼꼼하게 챙겼다.

김 부군수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함께 군정의 현안업무를 돌파하고 있어 군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각 부서 팀원들과의 오찬 자리를 마련해 직원들의 고충과 업무추진의 진도 과정을 직접 챙기고 있다.

직원들과의 만남의 자리는 30여년간 터득했던 공직의 노하우와 경험을 충

분히 살려 조연하고 해결해 줌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지난해 7월 부임 당시, 김 부군수는 “30년 공직 경험과 행정 역량을 더해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앞당기는데 능력과 열정을 쏟겠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그런 그이기에 지난 200일 동안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군정’ 방침을 제대로 실현하고 정주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재없이 관내 구석구석을 누볐다.

그는 취임 후 첫 행선지로 전통공예 공방을 둘러봤으며,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각오로 지금까지 ‘군정살피기’에 많은 열정과 시간을 할애했다.

복합문화도서관 조성 현장을 비롯해 남대천주변 경관조성사업장, 생태모험공원, 군립요양병원 신축현장, 반디나래지원센터, 동부권 입산물 물류터미널 조성 사업장 등을 점검하면서 사업 진척 상황을 살피기 위해 발품을 팔아 왔다.

이밖에도 김 부군수는 안성 예코빌리지 전원마을을 비롯한 농촌형 공공

임대 주택사업장 운영상황, 반디랜드와 태권도원,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머투와인동굴 등 안개본 사업장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무주사랑’이 됐다.

무주지역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해 기재부와 행안부, 문체부 등 정부부처를 비롯한 전북도를 수시로 방문하고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는데도 많은 공을 들였다.

김 부군수는 “지난해 발굴된 129개 신규 시책이 관광·문화도시, 살맛나는 농촌건설,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등 현안사업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22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7급 공채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한 김 부군수는 전북 남원출신으로 지난 1991년 남원시 금동사무소에서 공직생활에 첫 발을 내디뎠다. 전북 농촌진흥원과 남원시 기획팀장·문화관광과장을 거쳐 전북도 관광총괄과장, 전북도 신재생에너지과장 등 주요 요직을 거처며 깔끔하게 업무를 소화해 업무 능력이 탁월하다는 공직사회의 평을 얻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잘사는 농업·농촌 실현 위해 다양한 사업 펼친다

### 무주군, 천마중군배양센터·병해충 예찰방제단·미생물배양센터 등 운영

무주군이 올해도 잘사는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천마중군배양센터 운영을 비롯해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과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도 개방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최소화를 위해 촘촘한 예찰·방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방제예산으로 사업비 5억여 원을 확보하고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한다. 방제단은 지역 여건에 맞는 예찰·방제를 펼치면서 돌발병해충과 과산화성병 등 병해충 방제에 심혈을 기울인다.

또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생물배양센터를 운영하면서 미생물의 연중 생산과 함께 공급을 통한 품질좋은 농산물 생산을 꾀한다.

올해도 군비 1억7천여만 원을 확보하고 연중 150여톤의 미생물을 생산해 각 농가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량 천마중군 생산으로 천마 품질의 향상과 농가경영비 절감도 눈에 띈다. 군은 올해도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내 천마중군배양센터를 운영하고 천마중군 15만병을 생산해 관내 천마재배 농가들에게 우량천마 종균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와 버섯종균생산자협회 등으로부터 천마중군 생산을 위한 기술협력(자문)을 받아 우량 천마중군 생산에 역점을 둔다.

또한, 지난해 농업기술센터 새기술실증시험포장 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개설하고 기상장비와 정밀환경센서 등을 구축해 토마토 등 작물 재배를 위한 기술실증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곳에서 농업인 교육을 연중 실시함으로써 스마트농업 기술을 접목한 현장 교육과 적용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조건을 데이터화해 현장 농작물 재배에 적용함으로써 생산량을 늘려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복안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21일까지 전북형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진안군은 오는 21일까지 ‘2022년 전북형 청년수당(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전북형 청년수당은 취업 초기 저소득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비해 모집인원과 지원 범위를 확대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모집인원은 총 23명으로, 대상은 만 18세에서 39세 청년 중 공고일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도내 소재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수기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다.

대상자들은 월 30만원씩 1년간 최대 360만원을 신용카드와 연계한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희망자는 전북형 청년수당 사이트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진안=우태민 기자

# 장수군,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

### 축산농가 보호·경영안정 도모 위해 85% 농가당 최대 400만원

장수군이 자연재해, 화재 등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에 대비해 가입하는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추진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은 재난재해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한 피해 복구로 농가 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가의 실손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산출된 가축재해보험료의 85%(국비 50%, 지방비 35%), 농가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이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대상 농가 중 미등록·미허가 농가는 지원 제외된다.

가입가능 축종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등)과 기타 가축 5종(양, 벌 등)이며, 축사·시설물도 가능하다.

시가 기준으로 소는 60~80%, 돼지는 손해액의 80~95%, 가금은 60~95%, 꿀벌·토끼·오소는 95%까지 보상되며, 특약으로 축사를 포함할 경우 화재 등 재해 발생시에도 보상가능하다.

가입신청은 예산 소진시까지 이뤄지며,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NH농



장수군이 자연재해, 화재 등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에 대비해 가입하는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협손해보험(재해보험사업자),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장수군은 지난해 관내 축산 농가 365개소에 3억 9,000만원(지방비)의 보험료를 지원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장영수 군수는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내 많은 축산 농가들이 가축재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군은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축산농가가 안정적인 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장수군, 농축산용 유용미생물 972t 무상 공급

장수군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친환경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유용미생물 972t을 농가 1,000여 곳에 공급한다.

‘농축산용 유용미생물 공급 사업’은 유용미생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해 친환경·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21일까지 가까운 농업인상담소 및 기후변화연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내 공급되는 농업용미생물제제는 생육촉진미생물제제, 병발생억제미생물제제, 입상형미생물제제, 잿빛곰팡이병방제, 클로렐라 등 9품목 332t, 축산용제제로는 미생물보조사료(장수바이오1호), 송아지설사억제제(장수바이오2호), 약취저감제(2품목)와 고품질 사일리지첨가제 등 5개 품목 640t이 보급된다.

특히 올해에는 축사 및 퇴비 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한 민원 해결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과립형 약취저감 미생물제제를 처음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농·축산 유용미생물제제는 생장촉진호르몬과 항생물질을 생생해 작물



의 생육 촉진, 품질 향상 및 병해충 예방 등에 효과적이다.

친환경미생물제제 사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업인상담소 및 기후변화연구팀으로 신청가능 하며, 농가보급은 농업기술센터 내 친환경미생물지원센터에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뤄진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장수군에서 직접 생산해 보급하는 친환경미생물 사업을 확대해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친환경농업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수군이 친환경 농업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신규 강소농 모집

진안군은 중소규모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2022년도 신규 강소농’을 오는 2월 11일까지 모집한다.

강소농 사업은 단계별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농산물 생산과정에서의 비용절감과 품질개선, 다양한 고객 확대를 위한 제품의 가치 향상, 이를 위한 농장주의 역량 강화에 목표를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선발인원은 25명 내외다.

선정된 농가는 농가별 경영개선 교육, 농장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진단과 컨설팅 등 농장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농가는 진안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과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팀,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진안=우태민 기자

### 무주군, 토지특성조사 착수

무주군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앞두고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15만6천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 실시한다.

토지특성조사는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가 가진 물리적, 입지적 특성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군은 토지(임야)대상, 건축물대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적장부를 확인하고 토지개발사업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의 고저, 형상, 도로접면 등을 조사한다.

필수검증 대상인 사유지뿐만 아니라 무주군의 국·공유지가 포함해 조사, 산정을 통해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 대상 토지의 공정하고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된 토지 특성을 토대로 오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 기준과 비교해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 검증 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수렴을 거치고 무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29일 결정 공시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